

■ 고사성어 ②



계군일학 : 닭의 무리 속에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으로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이 섞여 있음의 비유.

위진(魏晉)시대, 완적(阮籍)·완화(阮咸), 해강(嵇康), 산도(山濤)·왕웅(王戎)·유령(劉伶)·상수(尙秀) 곧 죽림 칠현(竹林七賢)으로 불리는 일곱 명의 선비가 있었다. 이들은 종종 지금의 하남성(河南省) 북동부에 있는 죽림에 모여 노장(老莊)의 허무 사상을 바탕으로 한 청담(淸談)을 담론했다. 그런데 죽림 칠현 중 위나라 때 중산대부(中散大夫)로 있던 해강이 역을 한 죄를 뒤집어 쓰고 처형당했다. 그때 해강에게는 나이 열 살 밖에 안되는

아들 해소(嵇紹 ?~304)가 있었다. 해소가 장성하자 중신(重臣) 산도가 그를 무제(武帝:265-290, 위나라를 발하고 진나라를 세운 사마염(司馬炎)에게 천거했다. "폐하 <서경(書經)의 강고편(康誥篇)에는 부자간의 죄는 서로 연좌(連坐)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으나, 해소가 비록 해강의 자식이긴 하나나 충명함이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대부 극결(卻缺)에게 결코 뒤지지 않사오니 그를 비서랑(秘書郎)으로 기용하시오



경북 영주생 검교공파 34세 H.P:010-5483-7511 -의력- 개인전4회,초대그룹전20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운영위원, 심사위원 역임 ·영남미술협회 회장 ·유강 서화연구회 원장

소서" "경이 천거하는 사람이라면 승(丞)이라도 능히 감당할 것이요"이리하여 해소는 비서랑보다 한 계급 위인 비서승에 임명되었다. 해소가 임명되던 그 이튿날 어떤 사람이 자못 감격하여 왕웅에게 말했다 "어제 구름처럼 많이 모인 사람들이 깨어서 입결하는 해소를 보았습니까, 그 늙은한 모습은 마치 닭의 무리 속에 우뚝 선 한 마리의 학(群鷄一鶴) 같았습니다." 그러자 왕웅은 미소를 띠고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해소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지만 그는 해소보다 훨씬 더 늙었습니다"

한 다음 이렇게 말했다. "자장은 아무래도 매사에 지나친 면이 있고, 자하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다면 자장이 낫겠군요?" 자공이 다시 문자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지 않다.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過猶不及)." 공자는 중용(中庸)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중정(中正)함의 도(道)를 말했던 것이다.



과유불급 : 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 어느날 제자인 자공(子貢:B·C 520-456)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자장(子張)과 자하(子夏)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합니까?" 공자는 두 제자를 비교

안동전통문악 축제연장을 가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축제<1>

■ 권 두 현 (재)안동축제관광조직위 사무처장



합회를 거쳐 경북문화산업연구소를 만들어 문화 활동의 저변을 넓혀갔다. "민속학과를 다니면서 보니 안동은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유산을 갖고 있는 경쟁력 있는 도시였어요. 어떻게 하면 안동을 가진 도시로 만들까 고민했죠." 민속문화는 민중문화에만 관심이 있고 지배문화에 대한 관심은 소홀한 부분도 없지 않는데 안동은 선비문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민중문화도 풍성한 곳이었어요. 양반문화와 민중문화는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완성된 사회 속에서 잘 조화되어 있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보편적으로 조선의 왕보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문화적으로 가치 있고 행복하지 못한 부분이 많죠. 우리에게 문화적인 즐거움에 대한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호에 계속>

어린시절 미술시간, 바가지 위에 종이쪽을 덧대어 탈을 만든 적이 있었다. 제멋대로 만들어진 탈을 가지고 너도 나도 신났던 순간을 어렵잖이 기억해 본다. 전통이 무엇인지, 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몰랐던 시절이었지만, 어렵사리 탈을 만들어낸 그 시간들이 분명 즐거웠다. 멈춰있는 전통은 의미가 없다. 전통에 생명력을 불어 넣는 것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향유할 때이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멈춰있던 전통 탈춤을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게 하고 고단한 삶의 한 자락을 채워주었다. 탈춤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만들어낸 그 권두현 안동축제관광조직위사무처장을 만났다.

<글, 김진희 사진, 김병구 연합콘텐츠>

생동감 있는 전통문화축제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 삶의 활력이 필요한 사람들, 신나는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 아이들을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눈여겨 보는 것은 지역축제이다. 작년 가을, 안동에서 열흘동안 매일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집중시켰던 축제가 열렸다. 탈춤을 매개로 한 지역 축제 중 유일하게 생명력을 유지한 '국제안동탈춤페스티벌'이 그것이다. 지역축제인데 '국제'라는 타이틀이 붙었다. 지역축제가 세계적인 축제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만큼 축제의 질과 성과는 대단했다. 더욱이 이 축제의 주인공은 지식인의 소산이나 권력의 가치로 여겨지는 편견을 지나고 있는 '전통 문화제'라는 이름 속 '탈춤'이다. 이 축제에서는 공연이나 관

람자의 경계가 없이 누구나 주인공이 되어 옛 것을 오늘의 것으로 즐기고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 심지어 한국적인 전통에 세계적인 전통까지 더해져 새로운 '탈춤'의 세계로 사람들을 이끈다. 이 생동감 있는 축제를 만든 장본인 권두현 사무처장, 자칫 재미없고 따분하게 생각되는 '전통 문화'를 살리기 위해 그는 어제, 오늘 그 행동을 했다. "그저 13개의 탈춤만 매년 반복하면, 누구의 흥미를 끌 수 있겠어요. 무형문화유산을 그대로 아는 것은 보존가치는 있지만, 축제에 대한 열광을 이끌어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전통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한 겁니다. 전통적인 탈춤에 현대적인 감각의 탈춤을 결합시켜 대중들이 공감할 이끌어 낼 수 있었죠" 문화산업은 내 운명 그는 안동에서 나고 자랐다. 전통이 풍부한 그곳에서 살 때에는 오히려 그 가치를 모르고 지냈다. 안동을 벗어나 대학에 진학하고 불교 학생회와 풍물패를 스치며 새롭게 전통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당시 저항 문화처럼 인식되었던 풍물이었지만, 그는 문화가 지닌 기본적인 본질이나 가치에 주목했고,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대학원에 진학했고, 동시에 풍물감습회, 민요감습회, 전통놀이 감습회 등 현장을 느끼며 문화활동의 영역에 자신을 던져 놓았다. 대학원 졸업 후 안동에서 자연스럽게 문화활동을 시작하면서 안동문화운동원

■ 우강 권이역 전 장관 에세이

허준 박물관



2011년 4월 20일 오후 2시 30분 강서구(江西)에 소재해 있는허준(許浚) 박물관을 방문했다. 내가 대표로 있는 아카이브즈 포럼이 마련한 방문인데 참가자는 김용일 가천의대 명예총장, 정도연 서울대병원 병원역사문화센터소장, 동 센터 김삼태 교수, 가천의대 길병원 신봉자 과장, 녹십자JBP 박희은 약사 등 13명이었다.

허준 선생에 관하여는 잘 알려져 있으며 그의 명저인 '동의보감'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나는 한때 소설 '동의보감'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으며 허준 선생의 생애를 그린 드라마 '허준'을 시청하고 또 다른 감동을 받은 일이 있다. 허준 선생은 우리들이 숭모하는 성의(聖醫)인데다가 출생지가 경기도 양천(陽川)이라는 데에서 더욱 관심대상의 인물이었다. 나도 김포출신인 까닭이다. 나는 어렸을 때 고향인 하성면(霞城面) 소재의 보통학교에 3년 다녔는데 그때 양천 허씨(湯川許氏) 중에 임근님을 치료한 유명한 의사가 있었다는 소문은 널리 퍼져 있었다.

우리 일행을 맞이한 김재정 관장은 6년 전에 허준 박물관장으로 옮겨 오기 전까지는 한독의약 박물관장이었으며 나오는 구면이다. 한독의약 박물관에서 정년을 맞이하고 허준 박물관장으로 부임한 것이다. 김 관장은 우선 허 선생에 관하여 잘못 알려져 있는 내용과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허 선생의 출생지는 엄연히 경기도 김포군 양천현 파동리(현재의 서울시 강서구 등촌 2동 능곡마을)인데 소설이나 드라마 등에서는 출생지가 과주, 장성, 영광, 부안, 나주, 용천, 장단, 산청 등이라고 잘못 전해진 일이 있다고 했다. 가령 내가 읽었던 소설 '동의보감'에서는 용천이 출생지라고 했었다. 부친이 용천 부사였던 까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광이라는 설도 있는데 생모가 영광 김씨이며 고향이 영광이라는 데에 기인한다고 한다. 경기도 파주에는 허 선생의 묘소가 있지만, 장성읍지에서는 장성이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그 외의 여러 설도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설 '동의보감'에서는 부인이 전주 이씨(이다희)라고 하고 있지만 안동 김씨가 옳다. 아버지의 휘(諱)는 허론(許論)인데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허론(許論) 또는 허론(許論)으로 나오기도 한다. 출생연도에 관하여는 1537년(丁酉)설과 1539년(己亥)설이 있으나 1537년이 옳다. 그의 연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569(32세): 유희춘이 내의원(內醫院)의원으로 천거 1573(36세): 제3품 내의원 정(正)이 됨 1575(38세): 어의 인공익을 도와 선조를 치료함 1590(53세): 광해군의 두창을 치료한 공로로 정 3품 통정 대부(당상관)의 작위를 받음 1600(63세): 내의원 수의(首醫)가 됨 1604(67세): 임진왜란 때 선조를 의주까지 호종한 공로로 호성공신 양평군(襄平公)·주양평군(主襄平公)·군호와 종 1품 승록대부를 받음 1608(71세): 선조 승하의 책임을 지고 귀양 1609(72세): 광해군의 호의로 귀양에서 풀려남 1610(73세):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광해군에게 바침 1613(76세): '동의보감' 25권 25책 간행 1615(78세): 서거함, 정1품 보국숭록대부의 작위를 받음 허준 선생은 대단한 저작가였으며 종합의사인 '동의보감'을 비롯하여 구급 의서, 두창관련 의서, 산부인과 의서, 산행 관련 의서, 전염병관리 의서 등 9종의 의서를 저작하였다. 그는 물이 똑똑 떨어져 흐르는 동굴 아래 누추한 집에 거주하면서 '동의보감' 등을 저술하였으며 동굴에서 서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는 그의 스승이 류의태(柳義泰)로 되어 있으나 가공인물이다. 또한 유이태(柳爾泰)라고도 하지만

유이태(1652-1715)는 100여년 후대인이다. 소설에서는 '해부'를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거짓이다. 당시에는 '해부'가 있을 수 없는 시대였다. 김 관장의 설명으로는 여러 곳에서 '허준 박물관'을 유치하려고 했지만 결국 강서구청이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얻어 강서구 현재의 장소 즉 기양동 허준공원 옆에 박물관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곳은 선생이 태어난 곳이고 '동의보감'을 집필한 곳이기도 하며 서거한 곳이기도 하다. 또한 김 관장은 허준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과 아울러 휴식공간과 문화 향상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물관은 3층 건물인데 여러 전시물과 더불어 허준 기념실, 동의보감실, 약초약재실, 의약기실, 내의원과 한의원실 등이 마련되어 있어 한 의학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다. 전시물로는 백자약사발·곰돌약술·약 저울·약 손가락·청동 초두·은제 침통·약장·약연 '동의보감' 서랍·곰돌약탕관·약 소반 등 낱은 것들이 많으며 특히 동인도(銅人圖: 집술을 배우는데 쓰는, 경락과 경혈을 그린 인체 그림)가 눈에 띈다. 어린이들을 위한 IT 시설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많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방문하는 광경을 보고 대견하게 느끼기도 했다. 옥상에는 약초원이 있으며 '동의보감'에 나오는 약초 약 100종이 재배되고 있었다. 약초와 더불어 한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경치가 아름다웠다.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의 하나라고 평가받는다는 자랑도 늘어놓았다. 허준 선생의 묘소는 경기도 파주군 진동면 하포리 산 129번지에 있다. 1991년 9월 30일, 묘소가 발견되었는데 비문에 양평군, 호성공신, 허준 등의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선생의 묘소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서거한 곳은 파주 묘소 인근이 아니라 집필처인 공암(孔巖:허가바위, 파릉(巴陵)이다.

권순채 '토박이 마을 시집' 발간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농사꾼이 토박이 마을을 찾아가며 쓴 권순채 토박이 마을 시집 "토박이 마을과 땅 이름을 노래하다"란 책이 지난해 10월 15일 한국신춘문예협회 발행으로 발간됐다. 평생 농사를 짓고 경주 지방을 떠나 본 적이 없는 토박이 인생살이를 살아온 권순채씨가 마을과 땅이름을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 틈만 나면 마을 사람들을 불렀고 묻고, 기록하고, 사진을 찍은 경주시 내남면 13개 법정리와 34개 행정리, 80여 개 토박이 마을과 경주시 옛 탑정동 4개, 법정동 18개통 14개 토박이 마을을 '시(詩)'로서 표현했다. 산따라 물따라 길따라 읊은 지명시(地名詩)의 서정시, 알알이 향토의 이야기를 이렇게 감칠맛 나게 시로써 표현한 내용을 여태껏 본 일이 거의 없

이 작품집은 고향에 대한 진한 향수를 저절로 느끼게 하는 산과 물과 길을 따라 걸어가며 읊은 각 시(詩)마다 산골짜기 물이 흘러가듯 유연하게 풀려 내리고 있으며 시의 특성인 함축성과 절제성, 그리고 언어 미학의 핵심을 잘 이뤄내고 있다. 저자 권순채씨는 이미 오래 전에 문단에 등단한 작가이며 경북 경주에서 태어나 한글과 한글 이름 퍼기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경주지방의 땅 이름, 전설, 방언, 노거수 등을 조사하면서 고향마을(동굴)을 오가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사꾼이다.

이탈의시

이슬

별빛으로 몸을 행구어도 밤이 뜨거워 몸이 더워진 갈매 빛 질푸른 팔월 풀송이 송글송글한 땀방울들 새들도 낮잠을 자는 그런 풀송에는 아득한 누군가의 살내음이 납니다



권경업 詩人 62才 안동·별장공파, 36世 (사)아름다운사람들代表

20년전통의 농장직매

고송농원

- ♣ 도·소매 ♣ 경조화환 ♣ 조경공사 ♣ 꽃바구니 ♣ 각종화환 ♣ 관엽

서울 山岳會 權赫九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183-2 고송농원 TEL : 02)5752-5555 FAX : 02)6008-0677

http://flowertown.kr H. P : 010-2240-4242

서울 청·장년회 9월 월례회 안내

서울 청·장년회 9월 월례회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니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3년 9월12일(오후7시) ■ 장 소 : 봉삼한방삼계탕(구 락정)(02)522-9991~2 ■오시는길 : 2호선 서초역2번출구 200m지점 · 회장 권혁창 : 02)3435-6565(사)010-3680-5057 · 사무국장 권순용 : 02)581-1120(사)010-4911-9435 · e-mail:kojo571@hanmail.net / 인터넷 : www.andongkwon.net 2013년 9월 1일 서울 청·장년회 회장 권혁창